

# 남원시 행복마을버스·콜택시 농촌 누빈다

## 오늘부터 16개 읍·면 투입 운행 지리산 정령치 순환버스도

남원시가 지역 16개 읍·면에 행복마을버스와 행복콜택시를 운행하는 등 교통편의를 확대한다.

남원시는 1일부터 운봉읍과 대강·인월·아영면에 소형버스 3대를 투입해 행복마을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행복마을버스는 마을순환방식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행하며,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주민들은 요금 1000원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행복마을버스 운행 지역을 제외한 12개 면 지역에는 행복콜택시가 운행된다.

행복콜택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 또는 마을회관에서 면 소재지까지 운행되며, 해당 마을 주민들은 면에서 배부한 이용권과 함께 요금 500원을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행복마을버스와 행복콜택시를 원

활하게 운행하기 위해 읍·면에서 구성된 협의체를 중심으로 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상호 협의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내버스 노선 감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중교통 운행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행복마을버스·콜택시와 별도로 전국에서 찾아오는 지리산 관광객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정령치 순환버스도 운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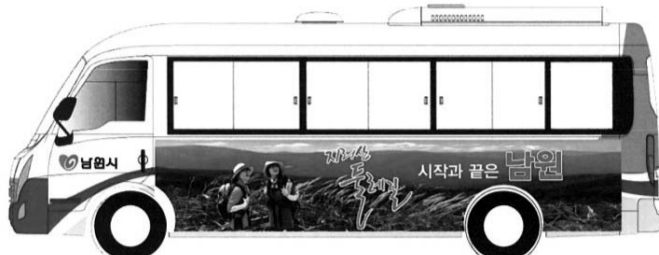
정령치 순환버스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일 2회씩, 시내에서 지리산 정령치까지 왕복 운행된다. 이용요금은 1000원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읍·면지역 학생,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복지정책을 시행해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12개 면지역에서 운행할 행복콜택시.



지리산 관광객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투입되는 정령치 순환버스.

## 전주한지 명맥 잇기 동참행렬 잇따라

### 종교계·박물관·금융권이어 대학들도 참여 약속

전주한지의 명맥을 잇기 위해 종교계, 박물관, 금융권이 이어 전북지역 대학들도 동참을 약속했다.

전주시와 전북지역 4개 대학은 지난 27일 전주시청 시청실에서 '전통한지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건>

이날 업무협약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 김우영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이호인 전주대학교 총장, 장영달 우석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한문화의 한 축이자 시의 대표 전통산업인 한지산업의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시와 대학들은 한지문화 공동발전과 공

공기관의 전통한지 소비 동참을 통해 한지 산업 발전을 이끌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시와 대학은 전주전통한지의 보존과 계승, 한지산업 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전북대 등 4개 대학은 대학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전주전통한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각종 한지 분야의 활발한 연구 활동에 힘쓰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대학에서 향후 추진될 한지작품 전시와 한지관련 행사 등에 행정적으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시는 전주 전통한지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더욱 수준 높고 품격 있는 한지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한지산업을 함



께 기를 든든한 동반자가 돼주신 4개 대학과 총장들께 깊이 감사 드린다”면서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주한지산업 산업화를 위해 국내 4대종교, 국립전주박물관, 신협중앙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키운다

### 시, 10개 기업 대상 3년간 3000만원까지 지원

군산시가 지역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기술력이 뛰어나고 잠재력이 풍부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이뤄진다.

이번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전북도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시행된다. 이를 위해 4월 1일부터 26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군산시에 소재한 본사(공장) 또는 주 사업장이며 창업한 지 3년 이

상,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의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중 2018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400억원 미만인 기업이다.

시는 총 2단계의 심층평가를 통해 올해 유망 강소기업 10여 개를 선정하고 3년간 해마다 3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해 ▲중장기 성장전략 수립 ▲기술혁신활동 ▲판로지원 ▲경영 및 품질 혁신 지원 등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강일준 군산시장은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기술혁신과 성장가능성이 풍부한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해 지역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사업은 군산시청과 새만금 산학융합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전담기관인 산학융합원 기업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고창군, 한해의 농사시작 알리는 ‘시농대제’ 개최

고창군이 전국 최초로 ‘시농대제(始農大祭)’를 개최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오는 19일 고창군 죽림리 고인돌 공원 일대에서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2019 고창 한반도 시농대제’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토종씨앗의 소중함을 알리는 ‘시농의식’, 군민대표 100명으로 구성된 ‘농부관리장전’ 등이 펼쳐진다.

개막공연으로는 농악과 농무, 농요가 결합한 복합공연이 무대에 올려진다.

또 LED화면을 통해 ‘어머니의 땅 고창’을 주제로 한 영상퍼포먼스도 이어진

다.

행사장에서는 ‘씨앗나눔 마당’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작물의 씨앗(옥수수 등 20품목)을 무료로 배포한다.

이와 함께 모종 4만주를 원가로 판매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농업의 중요성을 열 번 강조하는 것보다 기원제를 통해 농업의 신성함을 알리는 것이 바로 빠른 일이다”며 “이번 한반도 시농대제를 통해 고창군이 명실상부 농생명식품산업의 수도로 발돋움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 정읍시,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 지원사업 주력

### 특성화고·학원과 업무협약

정읍시가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에 주력한다.

시는 지난 28일 정읍제일고·학산고, 문경컴퓨터학원과 함께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와 각 교육기관은 특성화고 명장육성 사업과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특성화고 명장육성 사업은 지역 내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역산업과 뿌리사업 분야 등과 연계해 미래 기술·기능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에는 제일고 학생 56명과 학산고 학생 70명이 참여해 제과·제빵기능사와 컴퓨터응용반, 특수용접기능사 등의 교육을 받게 된다.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 사업은 청·중장년 실업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단기간 훈련을 통해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현장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참여 교육생에게는 무료로 자격증 취득 지원과 현장 실습, 취업지원 등의 기회가 제공되며 매월 35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받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익산시, 생활밀착형 SOC 공모사업 229억 확보

익산시가 정부 생활밀착형SOC사업 확보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국가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11개 생활 밀착형 SOC 공모사업에 선정돼 229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복지·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정부예산을 확보해 장애인체육관 건립, 펜싱 아카데미 건립, 실내야구연습장 건립, 서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등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2차례에 걸쳐 보고회를 실시해 52개 사업, 총 3202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해 국비 확보에 주력해 왔다.

시는 확정된 11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과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추진한다.

미확정된 발굴사업은 공모참여와 중앙부처를 설득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 순창군, 강천산군립공원 산책로·시설물 새단장

순창군이 봄맞이 강천산 군립공원 새 단장을 위해 등산로와 산책로, 시설물 등 일제 정비에 나섰다.

순창군은 국민의 휴양지로 사랑받고 있는 강천산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 내 6개 등산로와 맨발로 걷는 웰빙 산책로, 배수로 정비, 위험 구간 노면 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화장실과 각종 안내판, 시설물 등도 일제 정비하여 관광객에게 불거리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봄철에는 곧 만개할 철쭉과 개나리 군락지가 아름답게 조성될 예정이어서 관광객들에게 불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사무실 전용 급매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02호, 38평(전용 약 23평)
- 하천방향, 전체 울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대출 3천만원 가능
- 보5백만원에 월60만원에 임대가능
- 시세 - 1억 2000만원 정도  
급매 - 7500만원(일시불)  
문의. 010-6834-7400